

"AutoStore (AUTO.OL)"

물류 자동화의 선두주자

Summary

독특한
물류 자동화 기업
오슬로 상장
시총 17.3조원

노르웨이의 물류 자동화 기업 **AutoStore(오토스토어)**가 10월 21일, 오슬로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오토스토어는 **ASRS(Auto Storage Retrieval System)** 기업으로, 재고의 입출고와 보관을 서비스합니다. 특히 수직형 창고와 물류 로봇에 강점을 가졌습니다. 현재 전세계 창고의 15%만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장기간 강력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상장으로 오토스토어는 4천억원의 공모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는데 노르웨이 주식시장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모는 31크로네(4,316원)로 상장되어 현재 33크로네 수준인데 시총이 17조원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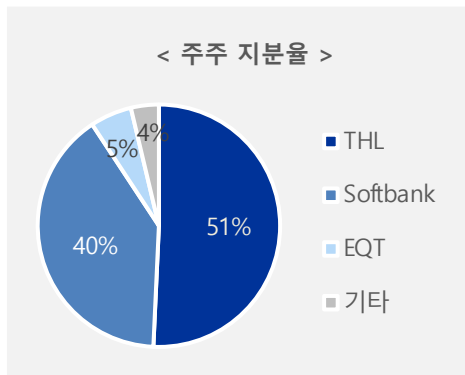
출처: AutoStore Website

History

독자 기술로
글로벌 진출

1996년 **Ingvor Hognaland**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로봇과 그리드를 통해 창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자 개발 기술에 대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북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특허 기술들을 비즈니스로 상업화하였으며, 2009년에는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화에 주력, 현재 35개국에 물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512개의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월마트, 화이자, 인텔, 구찌, 이케아, 쿠팡 등 글로벌 거대기업들이 주 고객입니다. 667개의 창고에 설비를 완성했으며, 유사 기술을 가진 경쟁자 Ocado(오카도)를 포함한 타사들이 완성한 창고 설비는 모두 합쳐도 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 지분
40%



출처: AutoStore 투자설명서

오토스토어는 2017년 유럽계 사모펀드 EQT에 인수되었다가, 2019년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THL에 인수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전자상거래와 로봇 공학에 꾸준히 투자해온 **소프트뱅크**가 3.3조원으로 지분의 40%를 인수하며 가장 주목 받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토스토어와 협력하여 물류와 유통을 세계 여러 지역의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추진중입니다

Business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매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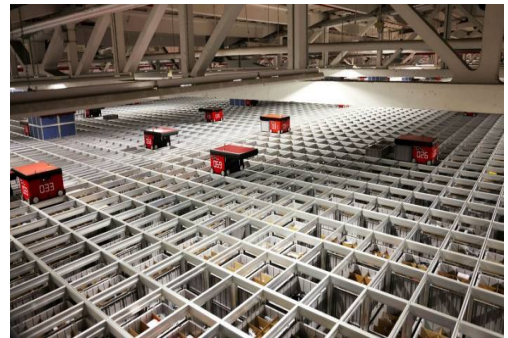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1억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했습니다. 분기 단위의 매출 상승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2021년 2분기 매출액은 8천5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4%나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고객사들이 타격을 입으며 계약이나 투자를 연기하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7% 감소했던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3억달러로 전년 대비 6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USD(백만)	2018	2019	2020	1H20	1H21	2Q21	2Q20
매출	142.6	193.9	180.6	79.2	148.4	84.8	41.6
영업이익	58.9	88.3	24.6	6.7	(16.3)	9.3	7.3
순이익(손실)	20.3	55.8	(21.1)	(56.5)	(17.3)	(1.7)	35.8

출처: Autostore 투자설명서

큐브 스토리지 자동화 - 픽킹 자동화 & 공간 효율 극대화

오토스토어만의 GTP(Goods To Person) 설비인 **큐브 스토리지 자동화**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로봇과 그리드(grid)가 핵심인데, 직육면체의 알루미늄 그리드에 상품이 보관되고 로봇들이 레일을 오가며 옮기는 구조입니다. 로봇들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병목현상 없이 상품을 옮깁니다. 작업자가 재고상자 사이를 지게차로 오갈 필요가 없어 **공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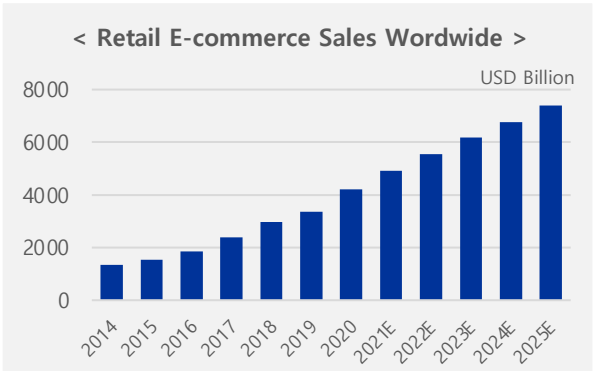
출처: Liesa Johannssen-Koppitz / Bloomberg

GTP 설비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설비 공간의 25%만으로도 모든 재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Key Insight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이 성장 기반

코로나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유통·물류의 자동화 수요가 늘었습니다. 오토스토어에 큰 기회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 25.7% 성장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자리잡은 인프라는 앞으로도 꾸준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출처: Statista 2021, eMarketer

물류 자동화의 확장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기업

유통·물류 자동화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식료품이나 명품 등 다양한 물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맞춤주문, 다품종 소량생산 주문이 증가하며 물류는 복잡해 졌습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창고 중 자동화가 완료된 비율은 15% 정도로 미흡합니다. 오토스토어는 아직 창고를 자동화하지 못한 85%의 창고들을 타겟으로 고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유통과 물류 혁신의 흐름 속에서 오토스토어가 어떻게 성장 기회를 잡을지 주목해야 합니다.